

'총선불교연대' 생긴다

"불국사" 가장 대표적이고 좋아하는 문화재

뉴스 & 뉴스

btn, 2월중 후원회 결성

불교TV(사장 주양자)는 1월29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32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월 안으로 후원회를 조직해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후원회장에 김기재 前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임키로 했으며 전상배 동민신경정신과원장을 신임이사로 영입했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TV 주식을 감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했다.

김주일 기자

'길상화 장학금' 제정

고급 요정 '대인각'을 불법의 도랑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김길상화(김영환)보살의 공덕을 기리는 장학금이 제정됐다. 맑고항기롭게(회주 법정스님)는 20일 오전 11시 '맑고항기롭게 길상화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장학금은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과 각 학교 및 성북구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은 불우청소년 22명에게 전달된다.

도필선 기자

백담사, 인재군에 장학금

백담사(주지 득우)가 최근 3년동안 인재군에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미담이 되고 있다.

백담사는 지난 1월22일 인재군청을 방문,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98년부터 3년동안 재단법인 인재군장학회에 매년 1,000만원씩 기탁, 지역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재경 기자

강원도 12개사찰 복원 정비

강원도가 사찰환경 개선과 문화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도내 12개 사찰을 연내 복원·정비한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국비·지방비 등 모두 27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춘천 청령사 행각 복원을 비롯 10개 사·군 13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캐나다 토론토 정혜사 개원

캐나다 토론토 정혜사는 오는 27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주지 정혜스님은 개원후 캐나다인을 위한 한글학교와 교민을 위한 영어학교 운영으로 주민복지에 전력하며 효과적인 포교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15개 불교단체 참가 9일 발족

4·13 총선을 맞아 각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선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단체들은 (가칭)2천년총선불교연대(총선불교연대)를 구성해 불국사 구원을 목표로 정치참여에 나선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불교비로세우기제가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조계사청년회, 대학생불교연합회, 새시대불교포럼, 조국경회동일불교협회, 자비의전화, 우리는선우, 불교환경교육원, 좋은것들,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장기수후원회, 한국불교서예인협회 등 15개 불교단체는 9일 총선불교연대를 발족시키기로 했으며, 대한불교청년회, 교수불자연합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도 참관단체로 참여한다.

지난 2일 모임을 가진 이들 단체 대표들은 삼일공동대표에 청화스님(실천승가회 공동대표)과 박광서 재가연대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불교의 무소유정신과 불살생·불투도의 지계정신으로 2000년 총선이 '바른 실상'을 소유한 정치 지도자를 뽑는 계기가 되도록 정치지도를 했다.

총선불교연대는 "사회에 대한 불교의 의견과 무관심이 오늘의 정치현실을 만든 '사회적 공업(共業)'임을 자각하자"면서 "한

국불교의 총체적 참화를 통한 30여년간 정치권력에 대한 의존과 예측을 극복하기 위해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선불교연대는 이를 위해 불교에서 제시하는 정치지도자상, 정치윤리 등에 대한 토론회와 포럼, 인터넷 주제발표 등을 통해 불교적 정치개혁과 유권자 주권운동의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공천반대인사명단에 포함된 불자들의인들을 비롯, 다른 종교단체와 연대해 종교인 정치인들(공천반대자 67명중 50명)의 참회를 촉구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인권유린 행위자와 민족정신을 훼손시킨 공천반대인사들에 단호한 반대입장을 개진하기로 했다.

이번 불교총선연대의 결성은 총선시민연대가 지역별·권역별·분야별로 활동을 세분화하기로 한 것에 발맞춰 부산·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낙선·낙선운동 및 유권자 권리를 위한 운동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관계자였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불심이 깊은 부산 지역구에서 '전국 최대득표율 당선'을 공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보리방송모니터회

총선 감시연대 동참

보리방송모니터회는 경제정의 실천불교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연합회, 여성민주회, 언론지킴이시민연대 등 11개 언론단체와 함께 선거정보 감시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4일과 27

일 이 단체들은 모임을 갖고 앞으로 몇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의 김재일 회장은 감시연대 공동대표를 맡았고 박창규총무는 감시연대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장정적으로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방송 3사의 특집방송 모니터를 담당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기간동안 자원봉사로 참여할 모니터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02)712-5812.3 김재경 기자



○대표적인 15개 불교시민단체들은 2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4·13총선 낙선·낙선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등산객 벽돌나르고 공양하고 예불올리고

도봉산 천축사 대응전 불사

지난 1월 30일 북한산국립공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낭에 벽돌을 3장씩 넣어 둘러메고 산을 오른다. 1.6Km쯤 산을 오른 끝에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유서깊은 사찰 천축사. 짙어지고 온 벽돌을 증축불사가 진행중인 대응전 옆에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곧바로 공양간으로 향한다. ... 잠시 후 공양을 마친 사람들은 대응전에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는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천축사(주지 현공)가 시민들로부터 불사 도움을 받고 이들에게 점심공양 등의 감례를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천축사가 등산객들로부터 벽돌나르기 도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대응전 건축불사를 시작했지만 북한산국립공원 입구 매표소를 1km 지난 서원터에서부터 천축사까지는 차가

울라갈 수 없는 등산로여서 기와나 벽돌을 운반할 방법이 없었다. 천상 행기를 이용해야 했으나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이때 신도회가 배낭을 만들어 사할까지 짊어 나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등산객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사찰로서는 반갑기 그지없는 일. 등산객들에게 다과를 대접하기 시작했고, 계속해 등산객들의 도움이 줄을 잇자 점심때는 아예 공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자 공양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당을 참배하는 등산객들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주지스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포교효과까지 올리고 있다. 요즘에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하루 평균 당게는 500명 이상이 사찰을 참배한다.

현재까지 이렇게 쌓아올린 기와와 벽돌은 모두 23만장, 아직 울리지 못한 벽돌 10만장 정도 100톤은 올해 6월까지 올릴 예정이다. 벽돌 증축 불사이긴 하나 천축사 대응전은 일반인들이 세운 법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현공스님은 "공사비 절감효과도 크지만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사찰을 참배하고 신심을 내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비록 증축 불사이긴 하나 천축사 대응전은 일반인들이 세운 법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황룡사 전시관 연내 착공

경주시 279억 들여 2002년 완공

신라 최대의 호국사찰이었던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이 연내에 착공돼 오는 2002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2백79억2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황룡사지 인근 7천5백여평의 부지(경주시 구황동292-1번지)에 연건평1천8백여평의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을 건립기로 하

고 설계공모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 연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양식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로 세워질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에는 전시실과 역사변천과정실 수장고 공공시설들이 들어간다.

특히 전시실과 역사변천과정실에는 첨단 영상기법을 도입하여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기존의 박물관과 차별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의 담당공무원은 "황룡사9층목탑을 본떠 만든다는 애초의 계획은 원형고증의 어려움과 물로 세워질 황룡사지 유물전시관에는 전시실과 역사변천과정실 수장고 공공시설들이 들어간다.

경주=이윤호 기자

한마음선원 신도 120명 호국적성사 위문

한마음선원 주지 해원스님은 신도 120여명과 함께 1월20일 25사단 70연대 호국적성사(법사 이정훈)를 방문하고 군장병사들을 위로했다.

이정훈 법사는 호국적성사를 방문한 한마음선원 신도들에게 감사의 표시하고 상송OP, 70연대 제1, 2, 3대대를 안내해 법당 및 불교예선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들을 이들에게 부대내 병순수기 운동기 VTR 등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정훈 법사는 해원스님의 지원을 받아 호국적성사 중창 불사를 할 계획이다.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호국적성사는 법당 중수 외에도 법당 아래에 위치한 불상과 법당을 직접 잇는 108계단 및 묘사체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맑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ژه 김희균 회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일타콘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콘스님 / 신국판 / 5,000원

참선·염불·간경·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콘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염불·간경·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콘스님의 열반... 콘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 계 이야기

일타콘스님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받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투도·시음·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깊은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토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리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게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범공양은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문서를 원하시는 분은 송편서로 인력수집시오, 영민혜택을 드립니다.

독서요람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